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55호 2016년 12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자 라00076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55호) 발행인 신홍균 편집인 서명교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리더 칼럼
이슈 진단
연구원소식
발간물안내





“건설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다사다난 했던 2016년이 어느덧 종착점에 도착했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 정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계획하시는 모든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부동산 정책,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는 반면, 우리 전문건설업계까지 호황이 전달되기까지 아직은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사회가 속해있는 울산지역은 조선·해운 등의 침체로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이 불가피하고 지역 경제 침체가 예고되고 있어, 이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업계가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내실경영에 중점을 두고 건설기술력 개발과 체계화된 인력관리 시스템 배양 등 건설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전문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 및 종합건설업계에서 ‘공사비 절감’에 중점을 둔 경영에서 벗어나 적정 공사비를 지급하고 최고 품질의 공사목적물을 목표로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건강한 건설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문건설업계 현재의 위기극복과 건설업의 미래지향적 가치 창조, 불합리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노력하고 있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전문건설가족들이 시공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전문건설업 미래 먹거리를 고민할 때

지난달 발표된 2015년도 전문건설업 수주액은 81,7조원으로 전년도 72,3조원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전문건설업 수주액이 정체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최근의 수주액 증가는 상당한 수준이다. 전문건설업 수주 증가는 최근까지 이어져온 주택경기의 활성화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도 전문건설업 업종별 수주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16% 등 건축중심 업종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전문건설업의 2015년도 수주액 증가는 사실상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2014년부터 건설수주와 투자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 수주는 종합건설업 수주 이후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문건설업은 공종별로 종합공사 수주 이후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2년에 걸쳐 수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문건설업 수주액은 2017년까지 80조원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문건설업 수주액 증가세는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주택공급 과잉으로 인해 당장 종합건설업 수주액은 내년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의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은 지금부터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여력과 타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을 위한 정책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업계와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시장과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건설과 제조, 정보통신 등 융합산업에 대한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전문건설 기업 중 기술력과 관리능력이 확보된 기업은 해외진출 역시 고려해야 한다. 국내 시장의 먹거리가 부족하면 해외로의 진출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다. 지표로만 보면 여러 산업 중 건설업만이 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 지금부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도 늦을 수 있다. 업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박선구 책임연구원(parksung@ricon.re.kr)





丙申年을 정리하며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으로 2016년을 정리하기에는 무언가 모자란 느낌의 한 해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건설과 부동산 측면에서도 많은 이슈가 쏟아져 나왔고, 시장이 급변했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건설시장, 넓게 보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해당하는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2016년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8.25 부동산 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주택가격, 특히 신규분양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며 소위 분양불패라고 여겨지던 주택시장에 이 두 정책의 발표는 커다란 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과잉을 우려한 분양보증의 강화로 인해 수요와 공급시장 모두 위축되었으며, 지방으로부터 시작된 가격하락의 여파가 서울과 수도권에도 두루 미치게 되었다. 아마도 올해로 그 효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은 2016년을 시작으로 공급대란이 현실화되는 2018년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영역으로 제한한 이슈를 보면 건설투자와 경제를 견인했다는 사실이다. 조선과 해운업 불황과 전통적인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실 상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했다. 건설투자의 큰 폭의 증가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건설투자에 대한 낙관적 시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내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리란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건설관련 연구기관들은 2017년 건설수주가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리라는 게 주된 시각이다. 짧은 호황을 마치고, 다시 경기하강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 되어버린 현재에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올해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끝없이 이어져 온기 없는 내년 한 해가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벌써부터 앞선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한 시장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늘 성장만하는 시장도 없다. 늘 부침이 있었고, 어찌면 생존의 문제는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 전 금융위기라는 큰 위기를 겪었고, 다행히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위기에 적응하고,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17년 丁酉年 한 해도 타고난 생존본능으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전문건설업체를 응원하며, 파이팅을 외쳐본다.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우리 연구원은 지난 12월 13일 삼성호텔 마리룸에서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건설기술의 발전과 시설물의 품질,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기준 변화에 따라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 연구원의 박승국 연구위원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현행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문제점과 하자의 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신은영 수석연구원은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발주자와 시공자가 균형 있게 책임을 부담하는 효율적인 하자담보책임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 주제발표 후 강경인 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상현 단국대 교수, 조봉호 아주대 교수, 조영준 중부대 교수, 지석호 서울대 교수,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문환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도재영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 김응일 서천건설(주) 대표이사, 이병수 명일건설(주) 상무이사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견을 나누었다.
-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매월 건설업계 현안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주제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련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 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쟁력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전문건설업 경쟁력 요소와 지원요소 14개를 도출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였다.
- 조사결과, 전문건설업체가 평가한 경쟁력 강화 요소는 ‘공사 및 현장관리’, ‘견적능력’, ‘수주 영업력’ 등을 언급하고 있어 건설업 시공주체로서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를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경쟁력 요소로서 해외시장 진출, 신시장 개척, 연구개발활동 등은 기업 간 인식에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본 연구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요소와 업무지원 요소를 평가하고 성장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구로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에 관심을 가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발주현황을 검토하고 발주자·건설업자의 면담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규 검토를 통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발주자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고품질 시설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간 융합에 따른 건설산업 입법정책 연구

- 본 연구는 산업융합의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건설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환경산업/정보통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입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 건설산업의 융합을 위한 입법 정책 방향으로 현행 법제의 개정과 새로운 법제의 제정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안전성 확보 및 건설공사비 절감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건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